

7장. 룻의 명예까지 지켜주는 특별한 헤세드(3:14-18)

I. 오늘의 포인트

1. 타작마당에서의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를 알아본다.
2. 보아스가 룻에게 행한 말과 행동을 중심으로 특별한 헤세드를 알아본다
3. 보아스와 룻의 타작마당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의 반응을 알아본다.

II. 본 론

A. 룻을 현숙한 여인으로 존중하는 보아스의 헤세드

- 1) 룻의 결혼 요청이 천박하게 보일 오해의 여지가 있는 형태에 대하여 안심시키는 보아스의 배려!

: 당신이 정숙한 여자라는 것은 온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다.

‘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’(룻3:11)

: 보아스가 기업무를 자라는 룻의 요구에 대하여 보아스가 순순히 인정함

‘.....이는 당신이 기업을 무를 자가 됴이니이다 하니’ (룻3:9)

‘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무를 자이나 기업 무를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’(룻3:12)

- 2) 룻이 혹시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할 지에 대한 두려움에서 안심시키는 말

: 룻의 걱정을 잠재우는 보아스의 위로의 말,

‘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’ (룻3:11)

- 3) 보아스가 보여주는 여인을 배려하는 적극적인 행동

: 앞으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임을 약속함

‘..... 아침에 그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’(룻3:13)

: 주변 사람들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배려함

‘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

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/(룻3:14)

4) 거룩한 내용을 속된 것으로 바꾸어지지 않도록 배려함

: 보아스가 성관계를 그 밤에 맺지 아니함.

‘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 지니라 하는지라’(룻3: 13)

5)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함

: 얼마나 신중하고 분명한 약속인지 그 진정성을 상대방이 느끼도록 선언함

‘.....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’(룻3:13)

B. 현실의 필요를 채우는 참된 헤세드

1) 보아스가 보인 현실적인 구체적인 헤세드의 모습

: 문제를 언급함으로 해결의지가 있다는 것을 강력히 표현함.

자기보다 가까운 기업 무를 자를 언급함으로 오히려 강력한 현실적 실현의지를 표현함

‘...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무를 자이나 기업 무를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.....그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.’(룻3:12-13)

2) 룯에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는 행동에서 나온 마음의 표현

: 실제적으로 필요를 채워주려는 마음

: “보리 여섯 번”(약 26kg 이상) 나 되는 것을 줌으로 자신이 기업무를 자가 되겠다는 강력한 의사의 표현의 증표

‘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겹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여섯 번 되어 룯에게 지워 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’(룻3:15)

: 특별히 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아스가 말함.

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 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

말라 하더이다'(룻3:17)
: 나오미가 귀향 때에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였다고 했는데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보아스를 통하여 채워주심을 본문은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.

: 손수 담아 준 것이다 라고 표현함

3) 헤세드의 삶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손해를 감수하는 삶의 모습들

: 룯이 나오미를 따라오려고 결정했을 때

: 나오미가 룯을 재혼시키려 결심했을 때

: 보아스가 룯의 칭혼을 받아 들이려고 결정 했을 때

C. 나오미의 해석과 해설

1) 나오미가 이 일이 어떻게 되었을지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

: 나오미가 이제 희망이 있는 기다림을 가지는 모습.

‘룯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룯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’(룻3:16)

2)이야기의 전체를 들은 나오미의 말

: 보아스의 행동과 말을 통하여 보아스가 즉시 이 일을 추진할 것을 예견함

‘.....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...(룻3:18)

3) 일의 결말이 우리 손에 달려 있지 않음을 고백하면서 기대의 기다림을 표현

: 나오미가 룯에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설명함

‘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!...(룻3:18)

: 나오미가 룯에게 적절한 가이드 역할을 진행해 오던 것의 절정

4) 나오미의 삶의 모습

: 나오미의 삶속에서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주는 삶이 보여짐

: 이는 룯으로부터 출발하여 나오미를 통하여서 보아스에게로 확장되어 나가고 있음

III. 적 용

1. 상대방이 제일 염려하는 것을 헤아려 말해 주어 안심시키는 마음을 배울 수 없을까?
2. 거룩한 것을 속된 것으로 바꾸지 않도록 행동하는 주의를 기울이며,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믿음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배울 수 없을까?

나침반 바이블

BIBLE